

#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 시·도당위원장 선출 등에도 권리당원 표 비중 높여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시한' 변경 당헌 개정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방안 당규 개정을 확정했다. 앞서 진행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낙마하면서 친명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이에 관련 당규 개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도 높였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꿨

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 활동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시킨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게 된다.

선호투표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된다.

당무위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 민주,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시행령 국회 수정·변경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쟁점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정안을 국회에서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거대 야당의 단독 입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법까지 손질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4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는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발의부터 본회의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셈이다.

진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숙려 기간은 아예 삭제했다.

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돼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

제기됐다"면서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설치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의 사실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의 사실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는 상임위 개의 규정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셈이다.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된 국회의장 임기 규정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 임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로 국회의 입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이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과방위 이어 법사위 단독 가동...채상병특검법 가속페달

### 숙려기간 생략하고 심사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가동했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곧바로 소위로 넘겨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

사 선임은 물론 법안 상정까지 속도전에 들어간 것이다. 법을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나와 "채상병 순직 날짜가 작년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

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로 김현 의원을 선임했다. 단독으로 구성된 11개 상임위 중 '핵심'으로 꼽히는 법사위와 과방위를 먼저 가동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들 상임위를 통해 특검법과 '방수 3법' 등을 속전속결로 관철하려는 의도다. /오광록 기자·연합뉴스 kroh@kwangju.co.kr

##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 향후 받게 될 재판 4개로 늘어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이며, 향후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

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충'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

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계좌 대장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을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적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환경성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효율투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지정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